‘희망의 동아줄’ 긴급복지지원금 신청 줄잇는다

광주,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하루 평균 52건

각 구청마다 특별팀 구성 ‘위기가정 발굴’ 효과

#1. 광주시 북구에 사는 이정아(여·38·가명)씨는 지난 1월 7일 남편이 상습 음주운전으로 수감되면서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여성 가장이 됐다. 그간 이씨는 남편이 일해 번 돈(월평균 200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왔었다.

살길이 막막해진 이씨는 다행히 지인의 소개를 받아 건물을 청소하는 일자리를 구했다. 하지만, 한 달 임금은 고작 33만원. 이 수입으로 세 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다.

평소 이씨의 딱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지인은 북구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담당 직원은 이씨의 재산이 213만원(보증금)이고 통장잔액이 60만원인 점 등을 파악한 뒤 이씨의 긴급생계 지원을 결정했다.

이씨는 현재 생계비 88만원과 연료비 8만8000원을 지원받게 되면서 당분간 생계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광주에서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위기 가정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각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위기가정발굴특별팀 등을 구성한 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등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광주일보 3월 4일자 6면〉

25일 광주지역 각 구에 따르면 ‘세모녀 자살사건’ 이후 긴급복지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진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각 구청에 접수된 긴급복지지원금 신청건수는 모두 1201건(하루평균 52.2건)이다.

앞서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신청건수는 2687건(〃 45.5건)이었다. 이달 들어서면서 신청건수가 전보다 하루평균 6.7건 가량 늘어난 셈이다.

긴급복지지원금도 하루 평균 2100만원(1~2월)에서 3000만원(이달)으로 900만원 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는 광주시와 각 구가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한데 이어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한 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거나 공과금 체납, 주거 취약 가정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해 이들을 돕는 점도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각 구는 앞으로 공무원·사회복지사·집배원·통장·전기검침원·우유배달원·택배기사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북구 관계자는 “위기 가정은 스스로 도움을 요구할 경황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웃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긴급복지지원제도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중한 질병·가출·휴업·폐업·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정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해없는 광주’ 결의 광주시 자율방재단연합회 발대식이 25일 오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가운데 5개구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재해없는 광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정서 휴대전화 알림음 울리자

판사, 해당 방청객 일어나게 한 뒤

“한번만 더 울리면 감치하겠다” 경고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휴대전화 알림음이 법정에서도 울렸다.

25일 광주지법 404호 법정. 갑자기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렸다. 이른바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북구청 주변에 내건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모(44)씨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유에 뒤이어 변호인이 의견을 개진하려던 찰나였다.

한 차례 울렸음에도 ‘모른 척’ 넘어갔던 재판부는 해당 방청객을 일어나도록 했다.

형사 6단독 모성준 판사는 “피고인·변호인·검찰·재판부 이외 조용히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누군가의 인생에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청객은) 30만원짜리 콘서트 티켓을 구입해 들어갈 때 휴대전화를 끄고 들어가지 않느냐. 이 자리는 거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방청객이 피고인으로 왔는지 서류를 확인하며 “한번만 더 울리면 감치(監置)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 판사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옆자리에서 또다시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렸다.

다음 사건을 위해 대기중인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난 것으로, 모 판사는 이 피고인에게도 재차 일어설 것을 요청했다. 이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를 끄면서 발생하는 소리가 잇따랐다.

어수선한 상황은 모 판사가 첫 번째 휴대전화 알림음 당사자가 법정을 잘못 찾은 사실을 확인, 법정 밖으로 내보낸 뒤 자연스럽게 종료됐다.

법정 앞에는 휴대전화를 끄거나 진동으로 해 재판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이 적혀 있고 방청석 의자 앞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는’ 메시지가 붙어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법원 안팎의 설명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촉촉한 봄비

광주·전남지역을 적신 촉촉한 봄비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안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비가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5시 현재 지역별 강우량이 광주 8.0㎜, 완도 13㎜, 진도 20.5㎜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26일 오전까지 광주·전남지역에 5㎜ 안팎의 비가 이어지다가, 이 날 밤부터 점차 개기 시작해 다음날인 27일에는 광주 최고기온이 22도까지 오르는 등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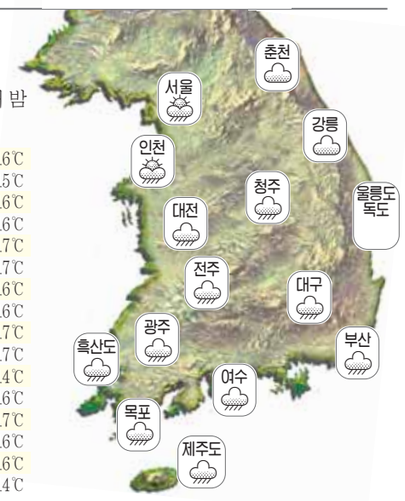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8분 / 해짐 18시 49분 — 달뜸 02시 59분 / 달짐 13시 56분

미세먼지 ‘보통’

오전부터 비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맑아지겠다.

광 주	흐리고 비	12/16℃
목 포	흐리고 비	10/15℃
여 수	흐리고 비	12/16℃
나 주	흐리고 비	11/16℃
완 도	흐리고 비	12/17℃
구 례	흐리고 비	12/17℃
강 진	흐리고 비	12/16℃
해 남	흐리고 비	12/16℃
장 흥	흐리고 비	12/17℃
순 천	흐리고 비	12/17℃
영 광	흐리고 비	10/14℃
진 도	흐리고 비	12/16℃
전 주	흐리고 비	11/17℃
군 산	흐리고 비	10/16℃
남 원	흐리고 비	11/16℃
흑산도	흐리고 비	9/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먼바다	남서~서	1.5~2.5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0m
먼바다	서~북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10:04 22:25	02:34 15:55
여수	05:35 17:48	11:53 23:5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7(목)	28(금)	29(토)	30(일)	31(월)	4/1(화)
날 씨						
최저/최고	9/22	8/23	12/18	10/19	8/19	9/18

선거법 위반 광주시 전·현 공무원 12명 기소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공무원 신분으로 현직 시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변인과 팀장급 전직 공무원은 구속 기소,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대변인실 뉴미디어팀 관련 전·현직 공무원 6명에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22차례에 걸쳐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강운태 광주시장 관련 비판 기사가 밀려나도록 속칭 밀어내기로 ‘바이럴 마케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은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 우선 검색되도록 해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현직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대행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웹문서, 카페, 블로그 등에서 시장에게 불리한 글이나 검색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은 대가로 건당 10만~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강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공무원 등 전·현직 10명(일부는 다른 혐의와 중복)은 당내 경선에 대비해 445명으로부터 민주당 입당 원서를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주 왕곡~금천 구간 등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확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더 빠르고, 더 안전한 국도 조성을 목표로 지능형교통체계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구축 확대 및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2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도 1호선 나주 왕곡~금천 구간 11.6㎞와 나주 남평읍 우회도로 6.1㎞ 등 17.7㎞ 구간에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강 원 (033)	
동해센터	535-4233
속초점	635-0101
원주지사	734-4645
정선점	563-5233
철원점	456-1122
춘천점	241-6233

서 울 (02)	
강동센터	476-5233
강서센터	2604-1133
광진센터	446-5233
구로센터	2688-8233
금천센터	867-8233
노원센터	6402-8233
도봉점	954-8887
목동센터	2648-1580
낙성대역센터	872-7008
성북점	3291-1001
송파센터	412-5233
신림센터	875-5933
영등포센터	843-2002
은평센터	308-3391
일원점	459-4593
중랑센터	2208-5233

경 기 (031)	
광명센터	02-2618-8275
구리점	563-8233
남양주센터	511-0770
동두천센터	859-5233
분당센터	781-5550
부천역곡센터	032-341-6515
산본센터	349-2282
성남센터	749-4233
의정부센터	845-8275
이천점	638-4521
파주센터	942-2002
포천센터	533-5833
부천송내점	032-329-9275
수원팔달센터	248-4411
연천전곡점	833-5233
일산주엽점	922-7100

인 천 (032)	
계양센터	543-0815
남구센터	876-1417
남동구점	425-5345
남동메디컬센터	466-0006
연수점	831-7333
중구센터	765-7172

충 북 (043)	
괴산점	834-4233
보은점	544-0222
영동센터	745-1116
옥천센터	732-2298
음성점	881-5233
증평점	836-0553

충 남 (041)	
공주연기센터	858-9600
당진센터	357-8488
보령센터	931-5233
부여점	836-2114
서천센터	953-4355
아산센터	544-5233
예산점	332-5233
천안센터	568-5235
청양점	944-1009

경 북 (054)	
경산점	053-814-1112
김천센터	436-6650
구미센터	451-2858
안동센터	842-3355
청도점	373-7799
포항중앙점	243-0030

대 전 (042)	
가오점	628-1234

전 북 (063)	
군산센터	445-9119
김제센터	543-5233
완주봉동점	262-4808
완주삼례점	291-8311
익산센터	851-7797
전주센터	242-2403
정읍센터	538-4242

대 구 (053)	
대구상인센터	635-4233

경 남 (055)	
김해진영점	343-2821
진주센터	744-1975

광 주 (062)	
광산점	942-3456
북구센터	266-9960
의대센터	233-5237
첨단점	971-3553

부 산 (051)	
동래점	552-5235
서면센터	808-9400
수영점	757-4077
연제센터	862-7488

전 남 (061)	
고흥점	833-0405
무안점	454-7799
목포센터	272-2702
순천센터	746-6277
영광점	353-4036
진도점	544-8880
해남점	536-0073

울 산 (052)	
울산센터	265-0233

제 주 (064)	
제주센터	712-6233